

전주다움

사람을 향한 전주 이야기

4월 2015년
나무들이 잎을 돋우는 달

은빛 정책특집_사람의 도시, 문화의 향기를 품다 | 색깔 전주에 말 걸다_〈스물〉의 주인공 배우 김우빈 | 향기 사람도서관, 사람책을 읽다_흐름출판사 한명수 대표



한옥마을에 핀
세 송이의 봄꽃

20대 청춘의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따사로운 봄날,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여대생들의 싱그러운 미소는 우리를 저절로 미소 짓게 만듭니다.



'사람도서관, 사람책을 읽다'는 '휴먼 라이브러리(Human Library)'입니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곧 책'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람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흐름출판사 한명수 대표

출판으로 인문의 도시를 잇다



인문도시 전주에 걸맞은 곳이 있다. 한명수 대표의 '흐름출판사'가 그러하다. 인문학 도서 전문 출판사로 이름이 알려진 이곳이 지난해 90권에 달하는 『추안급국안』을 펴냈다. 10여 년의 노력 끝에 세상에 얼굴을 드러낸 이 책과, 이 방대한 책을 엮어 낸 한명수 대표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때 책을 만드는 즐거움을 알았고, 출판에 발을 들이게 됐어요. 책이란 게 한 사람의 영혼을 고스란히 담는 거거든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열어 보여 주는 건데, 그 중간에 거치는 출판이라는 일을 하는 것이 정말 보람돼요. 또 은연중에 제 가슴속에 이러한 것을 하고 싶었던 어떤 게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책 내는 맛을 알게 된 게 제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됐죠. 저희가 인문학 전문 출판사로 알려졌지만 사실 인문학 책을 낸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번역서는 편집이 복잡하고, 확실하지 않아서 일반 도서에 비해 열 배 이상의 정성을 쏟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 책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치를 따지게 되더라고요.

『추안급국안』은 조선시대 선조 때부터 고종 때까지 그 시대 중죄인을 심문하고 진술한 내용을 담아낸 건데, 조선 300년의 역사를 엿볼 수 있어요. 10명의 연구자들이 636만 자나 되는 걸 꼼꼼하게 번역하려다 보니까 출판까지 꼭 10년 걸렸어요. 출판과정만 2년이나 걸린 대 작업이었죠. 과정은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책을 엮는다는 것이 보람이었고, 또 90권이나 되는 책을 내면서 쌓은 노하우도 큰 결실이었죠.

출판은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100년이 가도 축적된 가치가 남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 인문학에 관련된 도서는 가리지 않고 출판하려 나섰어요. 인문학이라는 게 사실 우리네 삶의 진면목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이라는 한계 때문에 출판 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현재 전주에 출판만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공유할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모르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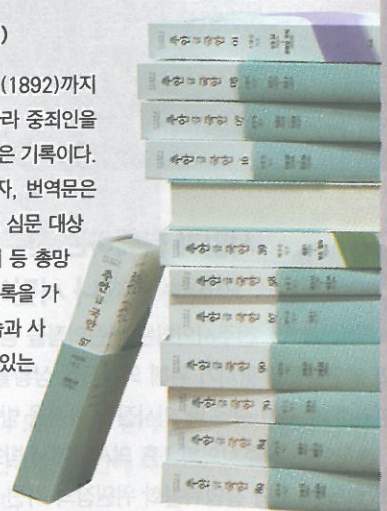
뛰어야 했죠. 지방에서 내로라하는 저자분들도 기술이 집약돼 있는 서울에서 출판하고 싶어 하니까 좋은 원고를 찾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출판 관련 공모를 통해 좋은 원고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우수 출판콘텐츠지원사업 같은 거요. 또 진흥원에 가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출판사에 할당을 좀 줬으면 한다.’고 말을 했지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부터 지방 출판사에 전체 작품 중 25%가 1인 출판사 및 지방 출판사에 할당됐더라고요. 출판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시도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좋은 원고를 발굴해 나갈 것이고, 책으로 엮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중간자적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책을 판매해서 이윤을 남기면, 또다시 좋은 원고를 찾는 데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공모전 있잖습니까? 나중에는 신춘문에 같은 공모전도 열고 싶어요. 그래서 전주가 출판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끊임없이 노력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믿습니다.” **전국**

『추안급국안(推家及鞠案)』(전 90권)

선조 34년(1601)부터 고종 29년(1892)까지 약 300년에 걸쳐 임금의 지시에 따라 중죄인을 체포, 심문한 내용을 적나라하게 담은 기록이다. 원문 글자 수는 약 636만 2천 글자, 번역문은 200자 원고지로 대략 15만 매이다. 심문 대상자는 양반에서 노비, 관료에서 궁녀 등 총망라되어 있고 심문과 진술 형태로 기록을 가감 없이 수록했다. 당시의 사회 모습과 사고방식 등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책이다.



Profile

한명수 흐름출판사 대표

전주대 산업미술과를 졸업하고 디자인 전문회사에 근무하던 중 책 엮는 일에 매료되어 인문학 전문 출판사(흐름 www.heureum.com)를 열었다. 국역 『추안급국안』(90권), 국역 『여지도서』(50권), 『지리산권 문화연구단총서』(10권), 국역 『존재집』(6권) 등 약 200여 종의 인문학 서적을 출간하였다.